“초기는 나무·대승은 꽃… 佛法 구조 알아야”

‘전재성 회장’

B1면에서 계속



전재성 회장은 초기불교 경전 역경불사의 원력을 높게 평가받아 2001년 조계종 포교대상 원력상을 수상했다.



광주 광륵사에서 열린 한국빠알리성전협회 발족식 모습.


평생 스승인 페터 노이야르 선생과 함께 찍은 사진.

‘민중불교’ 주창 그리고 고난

한국불교 지형을 바꿔놓은 역경불사 원력을 세우기까지 전재성 회장은 굽이진 고갯길을 넘고 넘어왔다. 그 인생의 고갯길은 한국사의 아픔과 궤를 같이한다.

전재성 회장의 부모님은 한국전쟁 1.4후퇴 당시 원산에서 월남해 부산에서 정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재성 회장이 태어났다. 4살 때에 전신화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사춘기 시절 많은 고민과 방황을 했다. 그런 방황 속에서 만난 것이 불교다.

“중학교 시절 생물을 가르쳤던 유응렬 선생님이 참선 지도를 했는데, 선생님께 참선을 배웠죠. 사춘기 때의 방황 속에서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학에서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1972년 서울대 농화학과에 입학한 전재성 회장은 서울대 농대불교학생회(농불회)를 창립해 회장을 했고,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무부장과 13년차 회장을 역임하게 된다.

유신독재의 엄혹한 시절, 당시 대학생이 그러했듯이 전재성 회장도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1976년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1600년 대회에서 처음으로 ‘민중불교를 위한 소론’을 발표한 그는 이를 보완해 1977년 월간 〈대화〉에 ‘민중불교론’을 게재하게 된다.

양극화돼 가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통 받는 민중들의 삶을 자각하고, 민중불교운동의 필요성을 불교사적으로 고찰한 이 소고는 후일 1980년대 법난 이후 민중불교운동의 이론적 토대가 됐지만, 전재성 회장에게는 고난의 요인이 됐다. 시국사건들에 휘말리면서 여러 차례 구금됐던 전재성 회장의 몸과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우선 건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폐결핵과 늑막염을 앓았죠. ‘민중불교론’ 집필 이후에는 서울대나 동국대에서 데모를 한다는 소문이 돌면 사전에 구금될 정도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스승 ‘거지성자’를 만나다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진 극한의 상황. 그를 삶이라는 공간에 붙잡아 놓을 수 있던 중력은 수행이었다. 우연하게 만난 한 시인이 건넨 빠라마항사 요가난다의 영문 저서를 접하고 인도의 정통 수행원리를 알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던 어느 날 안양천변에서 영적 체험을 하고 삶의 전환을 맞이한다. 공부를 이어가겠다는 결심을 한 전재성 회장은 동국대 대학원에 입학해 인도철학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독일 유학길에 올랐다. 독일 유학에서 전재성 회장은 자신의 평생 스승을 만나게 된다. 바로 ‘거지성자’ 페터 노이야르다.

“독일 유학을 가자마자 호숫가를 배회하다가 만난 사람이 페터 노이야르였습니다. 당시에 다른 사람에게는 누더기 옷을 입고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였지만, 저에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삶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성자였습니다. 라인 강변의 긴 산책로에서 벤치에 앉아 누더기를 기우며 들려준 초기경전의 구절들은 부처님이 살아계신 듯, 정말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감동스러웠던 경험을 모아서 쓴 것이 1999년 발간한 〈거지성자〉입니다.”

페터 노이야르 선생의 영향으로 초기불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전재성 회장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1989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돌아갈 때에도 페터 노이야르 선생은 그에게 초기불교 경전을 번역을 권하기도 했다.

그렇게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빠알리대장경 〈쌍윳따니까야〉를 번역하기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돈연 스님의 경전연구소에 들어간 전재성 회장은 〈빠알리어 사전〉과 〈범어문법학〉 집필에도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호사다마(好事多魔)라고 했던가. 2년 후 어느 날, 연구소는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가 된다. 그가 입은 가장 큰 손해는 영국 빠알리성전협회에서 수입한 빠알리대장경과 독일에서 가져온 많은 불교문헌, 일본에서 수입한 대장경들이 모두 불에 탄 것이다.

“그 때만해도 컴퓨터가 없어서 원고지에 육필로 번역을 했습니다. 불은 이른 새벽에 났고, 아침에 도착했더니 건물이 전소돼 있더군요. 화재현장을 둘러보다가 한 곳을 파보니 제가 번역하고 있던 〈쌍윳따니까야〉 첫3권이 일부만 불타고 남아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 가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원고뭉치를 가슴에 꼭 품고 집으로 돌아왔죠.”

민중불교론 제시, 고난의 청년기
화상 트라우마로 학창 시절 어려움
중학교 은사에게 참선 배우며 극복
서울대 농대 입학 후 ‘農佛會’ 창립
1977년 〈대화〉에 ‘민중불교론’ 게재
80년대 민중불교운동 이론적 토대

독일유학기 평생 스승을 만나다
수차례 수감으로 몸 · 정신 피폐해져
수행하며 ‘영적체험’하고 獨 유학길
유학 시절 페터 노이야르 만나면서
초기불교 관심… 역경불사 원력 세워
1999년 저서 〈거지성자〉 출판하기도

화재로 인해 경전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전재성 회장은 1992년 스리랑카 빠알리 불교대학 한국분교 전임 교수로 부임했다. 이것도 잠시였다. 1997년 IMF 여파로 학교는 폐교됐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 전재성 회장은 1997년 故 고익진 교수가 주석하던 광주 광륵사로 내려가 한국빠알리성전협회를 설립하고 다시 초기경전 번역에 매진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다. 경전연구소 시절 자신이 번역한 원고를 책으로 내려고 해도 출판비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도법 스님을 만났는데, ‘왜 책을 번역해 놓고 10년이 지나도록 내지 않느냐’고 물었다. 솔직하게 ‘출판비가 없다’고 답했고, 그 이후 도법 스님은 뜻 있는 스님들과 함께 제작비를 그에게 지원해줬다. 그렇게 역사적인 〈쌍윳따니까야〉 발간 불사가 시작됐고, 2002년 전 11권으로 완간할 수 있게 됐다.

왜 초기불교인가

2000년대 들어 한국불교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 초기불교를 알고자 하는 대중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초기불교 수행부터 경전까지 그 수요가 높아지면서 초기 경전 번역도 활발히 이뤄졌다. 그 포문을 연 것이 전재성 회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왜 21세기 대중들은 초기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을까. 이를 전재성 회장은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식’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역사적으로 시대변화에 대처한 불교가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지 못할 때에는 본래의 뿌리로 돌아가 다시 사유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파불교도 생겨났고, 대승불교도 생겨났죠. 대승불교 안에서 경전들도 시대가 지나면, 그러한 방식으로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초기불교가 건강한 나무라면, 대승불교는 그 나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초기불교 경전이 사유구조를 이해하는 데 용이하고 배운 즉시 효과가 있는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초기불교 경전을 통해 대중들이 부처님께서 설한 가르침의 정확한 개념적 구조를 알아가길 바랐다.

“불교를 오래 공부한 사람도 물어보면 기초적인 개념의 구조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생활세계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우선 자애(慈)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길’ 하는 마음이고, 연민(悲)이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들에게 권하고 싶은 초기 경전의 경구를 추천해달라고 했다. 곧바로 두 가지 경구들이 흘러나왔다.

모든 죄악을 짓지 않고
모든 착하고 건전한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깨달은 님들의 가르침이다.
(Dhp. 183)

어머니가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 바쳐 구하듯
이와 같이 모든 님들을 위하여
자애로운, 한량없는 마음 닦게 하여지이다.
(Stn. 149)

〈법구경〉과 〈숫타니파타〉의 저 경구. “전자는 율장 · 경장 · 논장의 구조를, 후자는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은 한량이 없음을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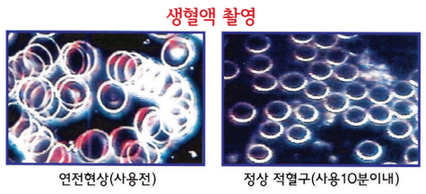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을 쉽게 한글화하는 것”이 목표라는 전재성 회장. 그는 오늘도 경전의 바다 속에서 부처님 원음을 찾아 우리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한다. 그의 역경 불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에이스 삼강 : 혈액건강 세포건강 구강건강

BLOOD MATE® 비누 한번으로 혈액건강·세포건강. ORAL MATE® 치약으로 양치후 뱉지 않고 삼켜서 구강건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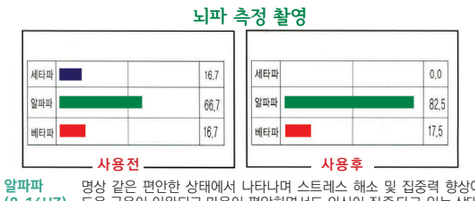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피가 맑아져서 혈액 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이상을 사전에 예방할것입니다.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 촬영



알파파 (8-14HZ) 명상 같은 편안한 상태에서 나타나며 스트레스 해소 및 집중력 향상에 도움 근육이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하면서도 의식이 집중되고 있는 상태

탈모예방 / 발모촉진


사용전 / 사용6개월 후

검 버 섯 / 제거현상


사용전 / 사용6개월 후

BLOOD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98.7%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효과 : 어깨결림, 허리통증 등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 뇌파가 정돈, 안정되어 정신이 맑아진다.

BLOOD MATE®

CS137(세슘)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복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최초로 개발된, 일본정부의 예산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항균 93%가 아토피,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80% 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지구상의 전 인류는 양치 후 뱉어내고 입을 물로 헹궜으나, ORAL MATE® 치약을 개발한 41년생 남자 본인은 양치 후 뱉어내지 않고 4년여 동안 보약 먹는 기분으로 먹고 있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① ORAL MATE®로 양치후 뱉지않고 삼키면 구강 건강(치주염, 잇몸에 피, 시린이, 구취, 구내염, 흔들림, 치아솟음 등 모든 잇몸질환)은 기본이고 93%의 항균력과 80%의 탈취력이 위와 장을 청소하므로 배탈, 설사, 변비 한번 없었고 속이 거북할 때나 과음시에는 소화제나 술 깨는 약을 먹은 것보다 빨리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지며 구취가 나지않고, 변이나 방귀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으며, 꾸르륵 꾸르륵하는 장운동 소리가 자주나면서 속이 편안해진다.

② ORAL MATE®로 양치 후 뱉지않고 먹었는데 30년 묵은 치질, 혈변이 사라졌다!!

ORAL MATE®를 사용후 4년여동안 감기몸살로 쉰 적도 앓은적도 없으며, 80년대 말부터 치질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만 먹었다하면 그 다음날 틀림없이 혈변이 나와 음식을 조심해왔으며, 병원에서 처방한 약을 사용해도 사용할 때 뿐이고, 혈변이 계속 되었는데 근래에 와서 매운음식, 자극성음식을 먹어도 혈변이 없어, 일부러 맵고 자극성음식을 먹어보는데도 혈변이 없음을 체험했습니다. 수십년간 고통을 주던 치질이 근본적으로 없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체험담을 공개합니다.

■ 유효기간은 행정규약일 뿐 화학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ORAL MATE®는 원료가 숙성되어 효과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구강은 건강하게 치아는 튼튼하게

ORAL MATE®

항균 93% 탈취 80% 음이온 146cc 원적외선 방사 89.7%

GERMANIUM & SELENIUM

ORAL MATE® 기능 효과 93%의 항균력, 80%의 탈취력

- 음이온과 온열을 피부 속 깊이 전달하여 ▶ 매끄럽고탄력있는잇몸 유지
- 음이온과 원적외선 상호 작용으로 피부 노폐물 방출로 ▶ 구강 건강 유지
- 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면역을 증강 시킨다. ▶ 잇몸 질환 예방
- 수중에서 다량의 용존산소를 발산하며 물분자를 활성화하여 ▶ 청결한 구강
- 각종균의 정균 작용과 살균,악취 제거 탁월. ▶ 충치예방과 입냄새 제거
- 잇몸에 붙어 있는 각종 중금속, 유기물질, 독성물질 등을 흡착/분해한다. ▶ 깨끗한 치아
- 체감 온도를 5°C 이상 향상시키며 제반 독소 효과적 제거

위의 내용 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주)에이스 삼강 ☎ 02)353-9692 / 010-2791-3696